



연합회 소식 ♥



[연합회장 동정]

회장과 사무국장, 울산 환경국장과의 만남

본 연합회 박천상 회장과 김병오 사무국장은 지난달 22일 울산광역시를 방문해 울산시 조기수 환경국장과 만나 환담을 가졌다.

이날 박 회장은 울산지역 환경기술인들의 애로사항을 울산협의회를 대신해 건의했고, 이에 조 국장은 지금까지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협력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환담장에는 이세일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장과 이종영 연합회 영남권부회장이 배석했다.

인천협의회(회장 김휴선)는 지난 7월 19일(목) 자문위원 및 임원들과 오붓한 저녁식사를 하면서 상반기 결



산보고 및 앞으로의 인천협의회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견들을 나누었다. 특히 이번 모임에서는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협의회에 활기를 되찾기 위한 좋은 지적들과 환경인들이 화합하여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힘이 넘치고 역동적인 협의회가 되자고 다짐했다.

인천협의회 - '골프장건설과 국토파괴' 대토론회 개최

인천협의회(회장 김휴선)는 지난 7월 11일 인천녹색회 주관으로 "골프장건설과 국토파괴"



대토론회를 문화예술회관에서 150여명의 시민들과 환경단체회원들이 모여 심포지엄을 가졌고 열린우리당 홍미영 국회의원, 한국녹색회 정운제회장, 인천시 배영민시의원, 인천환경운동연합 조강희 사무처장, 인천환경기술인협의회 이경수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하여 한국의 골프장건설과 국토파괴에 대한 대토론회를 가졌다.

[협의회 동정]

인천협의회 - '남동공단 악취조사연구 조사연구권 발대식' 참석

지난 7월 27일 남동공단 악취조사연구 조사요원 발대식을 인천지역환경개발센터에서 가



졌다. 이날 최계운 인천지역환경개발센터장님을 비롯 인천시, 남동구청, 인천환경기술인협의회, 환경전문기술요원들과 함께 남동공단 악취조사연구 조사요원 활동에 함께하기로 하였고 활동 방안에 대해 의논도 하였다.

광주전남협의회 - 생활속에 환경실천 교육 실시

광주·전남협의회(공동회장 김왕근, 방국진)은 지난 7월 29일, 7월 31일, 8월 15일 광주·전남 농촌지역을 순회하며 생활속에 환경을 실천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인천협의회 - 자문위원 및 임원 미팅



지난 7월 29일에는 광주 광산구 개척교회에서 지역주민과 교회 성도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사로 협의회 김왕근 회장이 휴가철 황룡강 보전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역할에 대해 설명이 있었으며, 31일에는 나주 세지교회에서 광주 전남지역 기독교청년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범석 빛고를 농촌체험학교 교장을 강사로 모시고 농촌 지역 환경 봉사활동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이날 강의 내용을 보면 농약 살포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농약병 처리, 과도한 비료 살포가 강과 바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청년들이 지역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지난 8월 15일에는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에 천연기념물 211호 외가리 백로 서식지인 상동마을을 찾아가 마을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마을 이장을 강사로 모시고 각 가정과 농사활동이 이지역 강과 하천을 오염시켜 철새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각별한 주의사항을 전달 하였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각 지역행사에 합성세제 대신 친환경 세제를 사용 할 것을 권장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만든 재활용 비누를 배포하였다.



전북협의회 - '2007년 한마음 가족 캠프' 실시

전북협의회(회장 정명운)에서는 지난 8월 18일 충남 서천군 비인면 소재 선도리 갯벌체험장에서 30여 가족, 총 120여명의 회원사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2007년 한마음 가족 캠프' 갯벌체험 행사를 실시하였다.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협의회 회원사 환경기술인들과 가족들을 위해 실시하게 된 이



번 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아빠, 엄마의 손을 잡고 넓은 갯벌에서 즐겁게 뛰어 놀며 현장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소중함과 우리의 자연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생태학습의 좋은 기회가 되었다. 갯벌체험 후에는 시상식 및 행운권 추첨을 실시하여 작지만 협의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도 나눌 수 있었으며, 갯벌체험장 인근 식당에서 현지 음식인 해물 칼국수를 맛보며 갯벌체험에 참가한 회원사 가족 모두가 한마음 한가족이 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한마음 가족 캠프는 회원사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뜻 깊은 행사로 정착되었으며 매년 회원사 가족들의 참여 수가 증가하고 있다. 전북협의회는 회원들의 사기 진작과 가족의 소중함, 자연 생태 학습의 좋은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마음 가족 캠프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경기서부협의회 - '임원연수회' 개최

경기서부환경기술인협의회(회장 이동호)는 지난 6월 16일~17일 강화도 모이세 민박에서 임원연수회를 실시하였다. work shop 주제는 ▲협회 발전기금 마련 방안 협의 ▲협의회 활성화 방안 모색 ▲2008년도부터 협의회 회비를 150,000으로 인상하기 위한 의결 등에 관계 심도있게 논의했다.

2일차에는 근처 마니산으로 체력 단련을 위한 등산을 다녀 왔다. 참석 인원은 전·현직 임원과 회원이었으며 친목 도모와 협회 활성화에 기여 하기로 하였다. (☺)